지역 메아리

김제보건소, 암 예방관리 교육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올바른 암 예방 정보를 제공하여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난 1일 청원을 대상으로 암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27.4%)는 암이다. 최근에는 환경변화와 급속한 노령화, 질병구조의 변화로 연간 21만여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는 약 143만5천명으로,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만도 총 5조 9,247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 발생의 1/3은 건강생활습관 실천으로, 1/3은 조기진단 및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5대암'으로 불리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강좌는 전북지역암센터와 연계하여 임상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초빙, 암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관리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진다.

또한 김제시는 이 밖에도 암환자의 삶의 의지를 더하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재가암관리사업 등 다양한 암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면 화재 피해 독거노인 방문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은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윤모씨(여,65)의 주택을 방문해 긴급 구호 물품을 지급하고 어르신을 위로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지난 1일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윤 씨의 집에서 불이 났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이 전소되어 소방서 추산 삼천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윤씨의 경우 독거노인으로 형편이 넉넉지 않고 자식들이 타지에 거주하고 있어 당장 도움을 받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면사무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물품 및 백구면 이웃돕기 성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관주 백구면장은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며 화재 복구를 위해 면에서도 지원 방안을 찾고 방문상담을 통해 어르신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완주군, 275개소 무더위쉼터 점검… 필터 청소 및 가스 충전

완주군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냉방기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완주군은 관내 무더위쉼터 275개소에 대한 냉방기 일제정비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해 조기 완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여름철 폭염기간에 어르신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시설이다.

완주군은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13개소가 늘어난 275개소 경로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앞서 쾌적한 경로당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에어컨 전문 정비업체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냉방기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필터 청소 및 교체와 가스 충전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특보 발효 시 예·경보스스템을 활용해 기상상황 전파와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무더위쉼터·그늘막 설치와 공사장, 농작업장 등 야외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올해도 폭염 발생 빈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무더위쉼터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품명품, 완주 찾는다

26일 녹화… 그림 · 도자기 · 민속품 등 접수

긴 역사를 자랑하는 KBS 진품명품이 완주를 찾아온다.

지난 1일 완주군에 따르면 KBS 1TV 'TV쇼 진품명품'이 완주군을 찾아 출장감정을 연다.

오는 26일 오후 1시 완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녹화방송을 진행하며, 그림, 글씨, 도자기, 민속품 등 고미술품등을 무료로 개별감정 한다.

개그맨 문용현씨의 진행으로 고서화(그림)에는 진동만, 고서(글씨) 김상환, 도자기 김준영, 민속품 양의숙 전문 감정위원이 각각 참여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완주군 기획감사실,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물품 접수하면 된다. 접수문의는 기획감사실 공보팀(290-2142)로 하면 된다.

단, 화폐와 우표, 수석, 불상은 당일 감정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감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한병삼 기획감사실장은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진품명품 프로그램이 완주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소장해 온 물품들을 전문가들에게 감정받아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박성일 선택해 '으뜸 완주' 만들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 · 안규백 최고위원 · 박영선 의원 등 완주 선거대책위 출정식 찾아 박성일 후보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안규백 최고위원, 박영선 의원 등 당 간판급 인사들이 지난 1일 완주군을 찾아 박성일 완주군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봉동읍 둔산파출소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 박성일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봉동읍 둔산파출소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 박성일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날 추 대표는 출정식에서 "박성일 후보는 민선6기 완주군수를 역임하는 동안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무엇보다 주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는 후보"라며 "약속이행과 민선6기 성과를 바탕으로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내건 박 후보에게 많은 완주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도 출정식에 참석한 뒤 봉동 둔산리 곳곳에서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박성일 후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위한 표밭 다지기에 힘을 보탰다.

안 최고위원은 오후 삼례읍을 방문해 "박 후보는 지난 대선 전 용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집권여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등 완주군을 더욱 발전시킬 참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박재완 후보, "기존 일자리부터 회복"

현대차 생산량 감소로 협력업체 · 자영업까지 어려워

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중형 트럭 생산이 하루 180대에서 120대로 30%가량 줄어들며, 협력업체와 자영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재완 완주군수 후보는 지난 1일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후보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재고 트럭만 5천대에 가깝게 누적돼 있다"며, "완주군 산단은 현대차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이는 완주군 경제에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최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전북 쌀을 현대차 트럭에 실어 보내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럴 경우 남북 평화에 이바지 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어 묘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재완 후보는 "전 정권에서 대북지원 중단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을 살리고, 북한 도로와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상용차를 지원함으로써 평화와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박재완 후보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수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가특화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100만평조성 ▲테크노밸리 친환경기업 유치(지역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강화 ▲읍·면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적극추진 ▲로컬푸드 식자재 공급확대 ▲지역·마을 특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청년일자리 보조금 확대 ▲청년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지평선학당 재경향우회 개최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권한대행 이후천)은 교육경쟁력 강화 및 미래 김제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평선학당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재경향우회를 지난 1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열었다.

지평선학당 재경향우회는 2010년도 졸업생부터 2017년 졸업생까지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5월 10일 20여명이 참석하여 제1회 재경향우회 만남을 가진 이후 매년 1회 이상 지역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재경향우회에는 35여명의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재단 상임이사 인사, 학생 간 자기소개, 김제시 주요사업과 장학재단 홍보, 간담회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간담회 시간에는 서울 장학숙 추진에 따른 건의사항 및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지역 후배들을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진로 멘토링 등의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논의도 하였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장학재단 상임이사)은 지평선학당 재경향우회를 통해 "지평선학당 졸업생들이 서로 친목을 다지고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황산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경작사실심사위 열어

김제 황산면(면장 강갑구)은 지난 1일 면사무소에서 2018년 쌀 및 밭농업 직불제 사업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를 주재한 강갑구 면장은 "지난 5월까지 신청 마감된 신청자의 농업종사 여부 및 신청 농지의 경작사실 여부 등을 심사위원들께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부당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 7명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2018년 쌀직불제 신청자 457명 3,405필지 778.3ha와 밭 직불제 335명 1,361필지 220.3ha에 대한 실 경작여부를 심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